

3. 尖端 産業 動靜

□ 중국, 과잉 설비투자 억제 강화

중국정부의 자동차 생산통제 강화 조치는 중소 생산업체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생산과잉을 회피하려는 것임

- 자동차 생산 인허가제 도입
 - 중국의 자동차 생산은 작년에 149만대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체 수는 약 120개社에 이르고 있음
 - 난립한 소규모 메이커들의 경쟁적인 增産으로 6월말 자동차재고는 전년보다 14.9% 증가한 13만 6천대에 달함
 - 이는 지방정부가 국내 수요를 무시하고 소규모 메이커를 독자적으로 육성해온 결과임
 - 따라서 중국 정부는 과잉 생산이 심각한 자동차업계에 생산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음
 - 생산 통제는 승용차, 버스, 특장차 등과 엔진 생산 공장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
 - 완성차 생산뿐만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설비투자도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합동 인허가를 받아야 함
 - 지속적인 통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형업체 위주의 업계재편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짐

○ 심각한 가전제품의 공급과잉

- TV 등 가전제품 분야에서도 공급능력 과잉이 심각한 상황
- 컬러TV 제조업체는 95년도末에 98社가 난립하여 생산능력이 총 4,467만대에 달하였으나, 實생산량은 2,057만대로 생산설비의 54%가 遊休化된 상태임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으로 95년도 재고가 300만대에 이르고 있음
- 그 외에 많은 분야에서도 생산과잉이 심각해짐에 따라 업종별 중복투자의 억제가 중앙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
- 생산 설비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급선무임

(「日本經濟新聞」, 1997. 9. 7)

□ 변화의 귀재 혼다 자동차

신속한 생산 설비
전환과 신모델 출
시로 경쟁에 앞서
가고 있는 일본의
혼다자동차

○ 같은 생산라인에서 구형과 신형을 생산하는 혼다

- 미국 매리스필의 혼다 공장에서는 구형과 신형 어코드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음
- 구형 생산組가 퇴근하면 신형 생산組가 투입되고 생산 설비가 전환되어 신제품을 생산
- 9월 중순경에는 완전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임
- 이러한 시스템은 신모델 출시에 따르는 설비 교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생산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임
- 통상, 신모델 생산 설비를 갖추기 위해 공장 가동을 수주간 멈추어야 하며 완벽한 대량 생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함
- GM은 1995년에 신형 시보레 생산이 지체되면서 9억 달러의 판매 손실을 보고 마케팅 전략에 차질을 빚었음
- 혼다는 신제품과 설비를 설계할 때부터 설비 교체를 염두에 두며, 출시 1년 전부터 공장 작업자들에게 신제품 생산 교육을 시키고 6개월 전부터 시제품을 생산함

미국 업체들도 신
모델 출시 속도를
혁신적으로 개선
할 방안을 모색하
고 있음

○ 일본 업체의 신속한 신모델 투입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반응

- 표면적으로 미국의 업체들은 일본과의 신모델 출시 속도 차이를 그다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음
- 일본의 신모델은 기본 골격을 크게 바꾸지 않은 것이라 설비 전환이 간단하며, 자신들은 신모델 출시가 늦더라도 완벽한 신모델을 내놓는 데 관심이 있다고 주장함
-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신속한 신모델 출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
- GM의 경우, 같은 라인에서 각 사업부의 다양한 차종을 동시에 생산하는 복잡한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정을 단순화시키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

(Newsweek, 1997. 9. 1)